

# “온 국민이 ‘5·18은 대한민국 역사’ 공감하는 기회 됐으면”

## 5·18 40주년 서울 특별전 여는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4·3제주항쟁 70주년(2018), 3·1운동 100주년(2019)전 등 대한민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열어온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전시를 열고 있다. 지난 13일 개막해 오는 10월31일까지 열리는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전은 수많은 이들이 들려주는 ‘그해 오월 이야기’로, 5·18전국화하의 중요한 결음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를 위해 학예관과 함께 수차례 광주를 방문, 준비작업을 진행해온 주진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을 만나 이번 전시의 의미 등을 들어봤다. 상명대 역사콘텐츠학과 교수 출신인 주 관장은 국정교과서 반대 모임 등을 주도하며 사회적 발언을 지속해왔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획을 그은 5·18을 주제로 한 대규모 전시가 서울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시를 준비하면서 감회가 남다른 한편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번 전시는 광주 시민이 아닌 분들, 5·18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이 5·18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5·18이 광주의 역사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점을 온 국민이 공감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전시가 단지 전시장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속에서 함께 호흡하면 좋겠습니다.”

5·18 주제로 전시 서울서 열리는 건 처음 정부·군에서 공개 문서·사진 볼 수 있어 미래세대에 삶과 연결된 역사 느끼게 해야 역사 생명력 얻으려면 문화장르 결합 필요

이번 전시는 5·18기념재단,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등 지역 단체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이 공동으로 준비한 매머드급 기획이다.

“상설공간을 제외한 모든 전시관과 회랑 등을 활용하는 이번 전시는 크게 두 개 섹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주를 떠나 처음 서울에서 전시되는 자료들에 시민의 목소리가 있고, 광주의 목소리가 있다면 국가기록원과 함께 준비한 공간에서는 정부, 군에서 생산한 문서와 사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에게 오월과 관련한 정부쪽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터라 이번 전시가 시민들과 군 정보를 동시에 한 자리에서 접하면서 종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이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에는 시민들이 숨어서 써내려간 1980년 5월 당시의 일기, 주먹밥을 만들던 양은 합치박, 총알



흔적이 남은 철재 캐비닛, 취재수첩 그리고 국방부의 상황일지까지 다양한 자료들이 나왔다.

“이번 전시는 ‘사람들’에 주목했습니다. 그 당시 5·18은 무엇이였을까. 목숨을 바친 시민군이나 가해자가 되어있던 계엄군은 물론이고, 같이 바라보며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용기가 없어 나서지는 못했던 그런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광주사태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된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기나 취재수첩같은 자료들은 그 당시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해줄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들입니다. 총탄에 맞은 캐비닛과 의사 가운은 그 때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이구요.”

주 관장은 1980년 당시 연세대 사학과 복학생이었다. 역사학자가 될 것인가, 다른 길을 갈 것인가 고민하던 당시 비록 ‘간접적’으로 겪은 5·18은 그가 역사학자의 길로 들어선 중요한 계기가 됐다. 30대 젊은 교수 시절엔 사학과 학생들을 데리고 제수를 준비해 늘 망설임 구묘역에 다녀가곤 했다. 주 관장은 미래 세대들이 5·18을 비롯해 대한민국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와 비극적 사건 등이 단순한 양기의 대상, 슬퍼하고 마는 대상으로 그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역사가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느낄 수 있어

아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자기들을 역사의 일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책에서 보는 역사가 돼버렸죠. 이게 무서운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라지고 망각되니까요. 책에 등장하는, 내 삶과 무관한 역사가 아니라 내 삶과 연결해 생각할 수 있는 역사의 사임을 느끼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당위로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의 삶의 변화를 느끼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역사적 사건에 너무 짓눌려서는 안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공감하는 시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광주정신은 더욱 많이 알려질 겁니다.”

주 관장은 ‘살아있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역사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결합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사를 연구하고 출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역사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 장르와 어울러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의 무게에 짓눌리면 단순한 ‘재연’에 그치기 때문에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져야하는 물론이죠. ‘작가들에게 역사적 상상력을 허하라’, ‘제가 자주 하는 말입니다.’

주관장은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나으면 역사마당에서 만나는 최평근 작가의 5·18 상징 조형물은 서로 감싸고 위로하며, 미래 평화를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한국 현대사에서 5·18민주화운동 의미 재조명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18 40주년 특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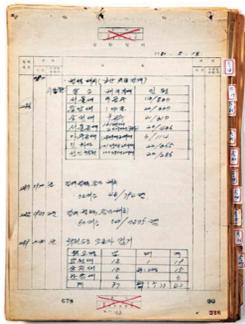
시민들의 일기·기자 취재수첩 등 공개 10월 31일까지...세계기록유산 첫 전시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시가 오는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은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5·18민주화운동은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광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정작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전시는 그해 오월의 한 복판에서 이를 경험하고, 목격하고, 알린 사람들의 기록과 당시 그들을 탄압했던 정부와 군의 기록을 살펴봄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이 한국 현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조명해보 기획이다.

특별전은 크게 4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3층 기획전시실에서 펼쳐지는 전시는 다양한 기록물과 실물자료 160여 점을 통해 40년 전 오월에 저마다의 자리에서 광주를 목격하고, 지키고, 알리려 애썼던 이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전한다. 전시는 1980년 5월 17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광주에서 일어난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국방부 '상황일지'

일들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5·18 이전의 사회정치적 상황과 5·18 이후 진상을 알리고 규명하기 위한 솔한 노력들까지 한눈에 짚어보는 기획이기도 하다.

전시에서 공개되는 핵심 자료는 사람들이 남긴 기록이다. 특히 시민들이 남긴 다양한 서울에서 처음으로 공개된다. 당시 초등학생·고등학생·대학생 등 광주 시민들이 뜨거운 심장으로 당시의 상황을 써내려갔던 일기 16점과, 당시에는 언론 탄압으로 기사화되지 못했던 기자들이 남긴 취재수첩과 메모 5점이 전시된다. 또 5·18 진상 규명을 위한 인터뷰



도미야마 다에코 작 '광주의 피에타'

기록들, 광주시민에게 보내는 위로의 시와 작품, 보도통제를 사진으로 기록한 자료, 계엄군의 군복과 군화, 진압봉, 도미야마 다에코의 판화 작품 ‘광주의 피에타’ 등 다양한 자료들이 오월의 고통과 충격을 증언한다

또한 당시 정부기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전개부터 이후 명예회복까지 정부 시각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층 기획전시실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소장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대표적인 정부기록물로 이루어진 ‘정부기록 속의 5·18’ 전시가 이루어진다. 정부기록물 전시는 6월 7일까지 열린다.

전시에서는 국방부와 광주 동구청에서 생산한 상황일지를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각 날짜별로 재구



5·18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특별전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 전시 오는 10월 31일까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다.

성해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했다.

이와 함께 수습상황보고, 피해신고접수상황 등 세계기록유산 10여점이 최초로 원본 전시되며, 국군기무사령부가 앨범으로 정리·보관하고 있었던 당시 사진집도 일반 국민에게 공개된다. 정부기록 100여 점은 비상계엄선포, 계엄포고문 제10호 시달, 상황일지, 광주사태 수습 긴급 지시문, 5·18사 진앨범, 피해신고 접수상황, 광주사태 수습 상황보

고 등이다. 박물관 외부 역사회랑에서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당시 사진을 비롯한 미디어 콘텐츠가 선을 보이며, 역사마당에는 최평근 조각 설치작가가 제작한 평화의 메시지와 위로를 건네는 작품이 전시된다. 무료 관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의료광고심의필 제 191202-중-102255호 www.woori-hospital.com

## 개원 17년간의 임상경험을 통한 정형외과 진료

# 첨단우리병원

### 목, 허리 디스크 치료

신경치료, 프롤로치료, 도수치료, 디스크 견인치료, 고주파치료

## 인생의 기둥 “목, 허리” 휘게 놔두지 마세요.

대표전화 062) 970-6000 광주 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